

북스

인간은 왜 달리기에 매혹 되는가?

어린이 책꽂이



▲토끼와 거북이-두 번째 경주=고전 속의 첫 번째 경주에서 패했던 토끼의 설욕전을 담았다. '말 잘 해' 여우 앵커가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두 번째 경주의 이야기가 그림과 잘 어울리며 즐거움을 전한다. 예상을 뒤엎는 반전 스토리와 교훈을 적절히 섞어 재미있게 구성했다. (미래아이·9000원)



▲역사를 파헤치는 고고학 탐정=지난 2000년 동안 고고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고대 유적들의 비밀을 어떻게 풀어냈는지 담았다. 과거를 찾아내려는 고고학 탐정들이 어떤 방법으로 시간 속의 증거물을 추적하고 재구성해 인류 역사에 대해 알아냈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아이세움·1만2000원)



▲봄 여름 가을 겨울-김중환 사계절 동화=우리 어른들의 어린 시절을 그렸다. 늘 혼자 노는 일없이 모여서 일하고 놀고 공부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썼다. 서로 이기려고 경쟁하는 일 없이 오순도순 살던 동화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고인돌·1만2000원)



▲공부가 되는 별자리 이야기=어린이 책 전문 창작 모임인 '글공작소'에서 펴낸 과학 학습서. 우주의 아름다움과 밤하늘의 별자리에 얽힌 신비로운 이야기를 통해 끝없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주에 대한 지식과 교양도 풍부 담았다. (아름다운사람들·1만2000원)



▲지도 따라 한 장 한 장 펼쳐 보는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우리나라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지도, 그림과 함께 소개한다. 고인돌, 창덕궁, 조선 왕릉 등 문화유산 9개, 판소리 등 무형유산 11개, 훈민정음, 승정원 일기 등 기록유산 7개 등 28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역사적 유래를 알기 쉽게 풀어냈다. (그린북·1만4000원)



▲빛과 색채의 화가 오지호=조선후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미술가들의 작품과 삶을 소개하기 위해 펴내는 '어린이미술관' 시리즈 열 번째 권. 소설가 문순태씨가 우리나라 인상주의 회화의 문을 연 작가 오지호(1905~1982년) 화백의 삶과 작품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았다. (나무숲·1만5000원)



▲종이 수선다람쥐=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동시 가 수록된 이상과 시인의 새 동시집, '빛방울' 등 일상 속의 작고 소소한 사물과 생명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는 시가 가득하다. 표제작 '종이 수선다' 등 40여 편의 시를 '나뭇잎이 불꽃다' '칠 조심' 등 3부로 나눠 엮었다. (해와나무·8500원)

▲2011 신춘문예 당선 동화=2011년 신춘문예 동화 부문 당선작 모음집이다. 광주일보 당선작 안수자씨의 '빛속에 사는 무당개미'를 비롯해 총 14개 작품을 실었다. 작품뿐만 아니라 당선소감과 심사평을 함께 실어 작품을 쓴 동기와 당선 경위 등을 알 수 있게 했다. (동작나라·1만2000원)

러닝-한 편의 세계사

토르 고타스 지음



'1Q84'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회고록 형식의 책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서 자신의 작품과 인생에 대한 은유로 달리기를 언급한다. 그는 이 책에서 "더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잘 살기 위해 달린다"라며 자신이 달리기 하지 않았더라면 인생의 많은 것들이 지금과 달랐을 거라고 말한다. 물론 하루키 같은 작가들만 달리기에 사로잡히는 건 아니다. 1970년대에 시작된 전 세계적 조깅 열풍을 지나 이제 달리기는 남녀노소를 초월해 사람받는 가장 친근한 스포츠이자 일상의 즐거움이 된 듯하다. 한국만 해도 지역 곳곳에서 달리기 대회가 열리고 참가 인원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달리기에 매혹 되는가? '러닝-한 편의 세계사'는 왕에게 전갈을 전하

기 위해 씌웠던 내달리야 했던 잉카제국의 차스키부터 권좌를 지키기 위해 달려야 했던 이집트의 파라오, 체코의 마라톤 영웅이자 '인간 기관차'로 불렸던 에밀 자토펙에 이르기까지 달리의 모든 것을 조망했다. 노르웨이의 민속학자이자 작가인 저자 토르 고타스는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과 신화, 전설 등을 넘나들며 달리의 역사를 생생하게 추적한다. 우선 책은 자신에게 왕이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고 분노한 신들을 달리기 위해 100마일 이상을 달려야 했던 수메르와 이집트 왕족을 이야기를 통해 달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 삶의 일부였음을 보여준다. 책은 또 '달리가 현 인류의 조상을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는 일군의 생물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아마도 인간으로 계속 살기 위해 우리는 엄청나게 걷고 달려야 했을 것이다. 저자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느 한 곳에 주저앉아 있다가 기계로 운반될 수밖에 없는 게으른 피조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각종 연구에 따르면 달리기나 걷기 같은 운동은 좌뇌와 우뇌의 교류를 증진시켜 인간의 주요한 특징인 창의력을 향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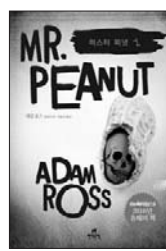


저자는 달리기 역사가 거의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말한다. 사진은 제46회 3·1절 전국 마라톤대회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킨다. 중국과 인도, 티베트, 일본 등 아시아권의 역사와 설화 속 달리기 이야기들도 펼쳐진다. 아시아권에서 달리가 매우 고된 정신수련의 한 방법이자 종교적인 색채를 띠기도 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총 32장으로 구성된 책은 이외에도 인간의 한계에 도전한 동서고금의 철각들, 달리기 시합을 두고 벌어졌던 갖가지 속담수와 사기꾼들의 흥미로운 일화 등 달리의 역사를 꼼꼼하게 복원해 낸다. 달리기라는 신체 활동은 단순하지만, 책 안에는 놀랍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여유가 있다면 조지 시한의 '달리기와 존재하기', 배트트 하인리히의 '우리는 왜 달리는가', 크리스토퍼 맥두걸의 '본 투 런' 등의 책도 함께 읽어볼 만하다. (책세상·3만2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아내가 죽기를 바라는 세남자

미스터 피넛 1·2 애덤 로스 지음



사람의 탐욕함과 결혼의 어두운 측면을 통렬하게 풍자한 미국의 신예작가 애덤 로스의 장편소설 '미스터 피넛'(전 2권)이 번역돼 나왔다. 아내를 사랑하는 동시에 아내의 죽음을 바라는 세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심리소설로 실제 사건과 허구의 범죄, 꿈속의 범죄가 얽혀며 파비우스의 피처럼 다층적인 미스터리 구조를 이룬다. 페넛은 아내 엘리스를 사랑하면서도 강박적으로 그녀의 죽음을 생각한다. 형사 헤스트롬은 참대에 드러누워 꿈짜듯 하지 않는 아내에게 살인 충동을 느낀다. 의사 셰퍼드는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무죄로 풀려난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스가 땅콩 알레르기로 사망하고, 페넛은 유력한 용의자가 된다. 헤스트롬과 셰퍼드가 엘리스의 죽음을 조사하면서 진실이 조금씩 드러난다. 데뷔작이지만 기발한 상상력과 거침없고 미려한 문체가 빛을 발한다. 비운의 예감, 풀려날지 못한 사람이 불러일으킨 재앙, 실패로 돌아간 결혼이 낳은 뼈저린 수치심 등의 단상이 깊은 여운을 남기는 작품이다. '쇼생크 탈출' 등을 쓴 미국 베스트셀러 작가 스티븐 킹은 "실제 사건과 허구의 범죄, 꿈속의 범죄가 한데 어우러져 시종일관 흥미진진하다. 그래서 악몽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역작이다"고 평했다. (현대문학·각 권 1만2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업들의 자본과 노동 지배 방식

보이지 않는 주인... 더글러스 러시코프 지음



자본과 노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방식을 일컫는 코르포라티즘(Corporatism) 즉 '기업 지배'의 영향력은 실로 광범위하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곳까지 뻗어가고 있다. 미국의 사회 평론가 더글러스 러시코프가 쓴 '보이지 않는 주인-인간을 위한 경계는 어떻게 파괴 되었는가'는 언제부터 인간들이 기업처럼 말하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기업이 어떤 장치를 통해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는지를 정치, 경제, 사회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저자는 기업이 그 태생에서부터 인간을 소외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기업은 르네상스 시대에 시장에 참여하고 싶었던 왕과 상거래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싶었던 부르주아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탄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은 인간을 쉽게 다루기 위해 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켜 '개인'으로 만들었고 '협력' 대신 '경쟁'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주입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기업이 주인이 된 지금의 경제체제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인간이 주인공 자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저자가 제시하는 해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기업 지배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자각과 실천'이다. (웅진지식하우스·1만8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목수 김씨가 본 창의력과 상상력

상상 목공소 김진송 지음



'서울에 판소리를 하리라', '나무로 깎은 책벌레' 등을 펴낸 김진송은 독특한 존재다. 국문학과 미술사를 전공한 그는 미술 평론, 전시·출판 기획 등을 거쳐 문화·역사·과학·예술을 아우르는 '종합 지식인'(저자 소개 글 중)으로 다양한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목수 김씨'로 삶을 살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김진송씨가 쓴 '상상 목공소'는 현대 사회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동력 중의 하나로 꼽히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어떻게 형성되는 지 들여다본 책이다. 그가 글을 풀어나가는 소재는 역시나 자신이 직접 나무를 깎아 만든 '움직이는 인형'들이다. 그는 '술 마시는 노인', '거미줄에 올라 타기', '지구에서 살아남기' 등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묘사를 통해, 그 인형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상상력과 창의력을 풀어낸다. '상상력은 대단하고 특별한 능력이 아닌, 감성 입입 능력이다, 공감력의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는 저자는 '창의적인 인간이란 학문적이거나 언어적인 지식 뿐 아니라 감각과 경험의 형태로 자유롭게 다른 분야로 이동할 수 있는 상상력의 소유자'라고 말한다. 김씨가 제작한 '움직이 인형' 작품 동영상은 문화동네 홈페이지에서 관람할 수 있다. (틀·1만3800원)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featuring a table of property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contact informati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Yungong Asset Korea, listing various propertie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Hyeon-dae Gongin Jeong-gae, highlighting land and building sal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Land Sale, providing details on land parcels and contact information.